

엷힌 전선·불 꺼진 피난 유도등... '안전불감' 여전

겨울추위 앞두고 화재위험 도사린 재래시장가보니

콘센트 하나에 밥솥 등 줄줄이 연결 '위험천만' 소화전 막은 가판대... 대피통로엔 물건 수북이

재래시장 상인들은 겨울철 화재의 위험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소화기·스프링클러·화재 감지기 등 미흡한 소방시설과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전선, 불 꺼진 피난 유도등 등으로 대형 화재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새벽 5시 쯤은 광주시 양동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최저기온은 7도. 입김이 나오는 쌀쌀한 날씨로 날이 추워질수록 난방기를 사용하는 상인들도 늘어나는 상태다. 일찍 문을 연 상인 대부분은 전기 히터와 장판으로 몸을 녹였고 전기포트·밥솥 등 온갖 전기 제품이 하나 하나 콘센트에 가득 연결된 채 가동되고

있었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에서는 양동시장 내 불량한 콘센트(83.3%)와 멀티탭(100%) 관리 상태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가스누설경보기 관리 상태도 '불량'으로 지적했다.

1년 전 결과 보고서에도, 양동시장의 경우 여전히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화·전기 설비 등은 미흡해 보였다.

채소 가게나 식육점 등 다수 점포는 버젓이 소화전 앞에 가판대를 세워놓아 비상상황 발생시에 신속하게 소화전 문을 열기 어렵게 만들어 보였다.

노후 건물에 미로같은 통로, 피난 통로 곳곳에 쌓여 대피를 어렵게 만드는 적지

물로 초기 진화가 안 되면 전통시장 화재는 급속도로 번지는 만큼 소화전과 소화기는 특히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에게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소방차 진입이 어렵게 된 도로도 여전했다. 소방차 진입을 위해 표시해 둔 주차금지 구역에는 차량 6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복잡한 미로 구조가 특징인 시장 내 화재 발생시 비상구를 비롯,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 등은 신속한 대피를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그릇 도·소매점 지하 1층 창고 계단에는 대형 플라스틱 통(지름 1m·높이 1.5m) 10여 개가 겹겹이 쌓여있었다.

건너물시장 내 상가는 아예 물품 컨베이어 벨트까지 설치했고, 이는 비상구 계단 절반을 차지했다.

양동시장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9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났다. 소방방재청은 양동시장을 지난 1958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우선 순위에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서구도 양동복개상가·수산시장·산업용품시장 등 7개 시장 내 갖춰야 할 소화기가 무려 585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양동시장 내 점포수만 1330개. 점포마다, 또는 보행거리 20m마다 소화기 1개가 설치돼야 하는 현행 법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와 양동시장에 대한 긴급 소방·전기·기계·건축 부문 등 안전합동점검을 나서기로 했다"면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시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소화기·소화전 예산 5억4000만원, 취약한 전기 시설을 보완을 위한 간선 교체 및 LED 조명 설치 비용 등 6억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양동시장 내 한 상인은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정부터 문을 여느라 난방기 없이는 장사를 못한다"며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불이 나면 번질까봐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화재 무방비



방치된 붓과 지붕에 물건 걸여놓고



관리상태 엉망 소화기



복잡하게 엷힌 전선, 불 꺼진 피난 유도등 등으로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렵고 큰 불로 번질

상습 '경품사기' 흠플러스 직원들

매년 조작 드러나 추가 기소...허위 응모 5명도 불구속 기소

개인정보보호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와 순금 골드바 등을 지속적으로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흠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8월 흠플

러스가 진행한 '서머페스티벌 자동차, 10대를 쏘시다' 경품행사에서 지인인 김모(54)씨가 당첨되도록 경품행사 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45)씨에게 부탁해 1등 경품인 뉴SM7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201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진행된 '응답하라! 2013! 겨울페스티벌' 경품 행사에서도 친구 이모(34)씨 아내와 같은 팀 최모(31) 대리의 선배 김모(34)

씨의 인적 사항을 빌려 같은 수법으로 BMW 320d, K7 승용차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5월 가정의 달 경품 행사 때도 업무상 알게 된 백모(41)씨의 조카 인적 사항과 부하 직원인 최씨의 친구 김모(31)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1등 경품인 순금 골드바 1kg과 2등 경품인 아우디 A4 승용차를 빼돌렸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6 해질 15:53
해짐 17:36 달짐 03:41

무등산 단풍 절정!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5/18	보성	맑음	2/17
목포	맑음	8/17	순천	맑음	5/17
여수	맑음	9/16	영광	맑음	4/17
나주	맑음	3/18	진도	맑음	5/16
완도	맑음	7/17	전주	맑음	4/17
구례	맑음	2/16	군산	맑음	3/16
강진	맑음	3/17	남원	맑음	2/16
해남	맑음	3/17	홍산도	맑음	11/16
장성	맑음	3/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서~북	0.5~0.5	남서~서	0.5~0.5
남해	서부	북서~북	0.5~1.0	남서~서	0.5~1.0
남해	남부	북서~북동	0.5~1.0	북~북동	0.5~0.5
남해	서부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57	04:57
여수	00:00	17:22
	06:57	00:39
	19:19	12:56

주간 날씨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	☀	☀	☁	☀	☀	☀
6/18	8/18	6/19	6/17	9/18	10/19	8/17

생활지수

식중독	37
운동	80
빨래	90

봄방학·가을방학... 방학도 다양해진다

내년 신학기부터 지역·학교별 운영 추진

내년 새학기부터 봄·가을 단기 방학이 도입되거나 기존 학년 말 방학이 없어지는 대신 겨울방학이 길어지는 등 방학이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학년 또는 학급이 바뀌는 2월의 형식적인 수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학사운영 모형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해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첫번째는 매월 하루나 이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거나 휴업하는 '월별 단기체험(방학)형'이다.

월별 체험일에 주제를 체험 활동 영역을 선정해 학생이 개인 또는 그룹별로 체험할 수 있다.

1·2학기로 구분된 현재 학기제를 유지하되 1학과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일주일가량 방학하는 '봄·가을 단기방학형'이 두번째 모형이다. 단 봄·가을 방학이 도입되면 여름·겨울 방학이 줄어든다. 수업과 평가, 방학이라는 주 가지 과정을 통해 학습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장기 수업과 장기 방

학에 따른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등학교는 단기 방학 시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문제, 고등학교는 3학년 수능시험 이전 가을 휴가의 적용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별도 운영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번째 모형은 취약 시기인 2월에 수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중입시 또는 졸업식만 하는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이다.

겨울방학의 시작 시기가 12월 말에서 1월 초로 미뤄지고 겨울방학과 학년 말 방학이 합쳐지므로 겨울방학이 두 달 가까이 길어진다. 단 여름방학이 다소 줄어든다.

지역에 따라 여름방학을 길게 하는 대신 겨울 방학을 축소할 수 있게 2학기를 1월 중순까지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 모형은 앞선 세 가지 모형을 2개 이상 혼합해 운영하는 '혼합형'이다. 네 가지 모형 모두 학년 또는 학급이 바뀌는 취약 시기에는 '꿈·끼 탐색 주간'으로 진로탐색·체험프로그램, 독서,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별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사운영 모형을 결정하도록 했다.

2015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비즈니스학과 석사과정 모집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20명(4학기) / 박사과정 2명(4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주말에 실시함
- FTA비즈니스모델, 무역경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조선대학교 대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FTA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호남권(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지원자 우대 및 합격자 특전

- FTA관련 기관 재직자 및 산업체 수출입 실무자 우대
- 합격자 전원 재학기간 동안(4학기) **합격기관별장학금** (수업료의 최소 1/2 지급)
- 전일제 연구생은 연구조교 근무 시 수업료 전액 지원
- 학위 취득 후 신자부장관 명의의 FTA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 발급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국내·외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턴십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영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014. 10. 29(수) 10:00 ~ 11. 10(월)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유웨이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를 센터 1588-8988)
입학지원서(출제) 및 서류제출	2014. 10. 29(수) 10:00 ~ 11. 11(화)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우)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합격자 발표	2014. 12. 4(목) 예정	·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www.chosun.ac.kr/~grad)에 발표표(개발정보 없음)

※2015년도 전기 신입생 추가모집일정(예정)

- 1차 : 2014년 12월 22일
- 2차 : 2015년 1월 5일

모집요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비즈니스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FTA비즈니스학과 062)230-7283 대학원 062)230-6401